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1. 9. 9.(목) 총 5매(본문 2, 참고 3)	
담당부서	어촌어항과	담당자	• 과장 성열산, 사무관 박태건, 주무관 황혜영 • ☎ (044)200-5650, 5659, 5652	
보도일시		2021년 9월 1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9.(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제10호·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은?

- 제10호 '전북 부안 곰소 천일염업'·제11호 '전남 신안 흑산 홍어잡이어업'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10일(금) '전북 부안군 곰소 천일염업'과 '전남 신안군 흑산 홍어잡이어업'을 제10호,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왔다. 2015년에 제주 해녀어업, 보성 뽕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을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제10호,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하기 위해 어업유산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7월), 현장 및 최종평가(9월)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통어업의 역사성, 유산의 가치와 문화, 주변 경관과 생태친화성, 지역주민의 참여의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전북 부안군 곰소 천일 염업'과 '전남 신안군 흑산 홍어잡이어업'을 제10호,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전북 부안군 곰소 천일염업'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습지보호지역 및 랍사르습지로 관리되는 청정해역에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친환경 자연방식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생산하는 전통어업이다.

바둑판모양의 독특한 경관을 지닌 곰소염전은 전북지역의 유일한 염전으로 연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곰소염전에서 나는 천일염은 인근의 곰소젼갈마을에 공급되고 있다. 곰소 천일염업은 70년의 역사를 지닌 소금 보관창고 등 전통방식의 보존과 동시에 세라믹타일 바닥재 등 현대적인 시설을 접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전남 신안군 흑산 홍어잡이어업’은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 주낙*을 홍어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하여 잡는 생태친화적 전통어업이다. 흑산 홍어잡이어업은 마을의 공동 유산으로서 주낙 채비, 조업, 경매, 홍어 썰기학교, 홍어축제 등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 주낙 :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어구

홍어는 「조선왕조실록」 등에도 왕에게 진상된 귀한 식재료로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흑산도 홍어는 정약전의 「자산어보」, 19세기 홍어장수 문순득의 「표해시말」에도 기록된 역사적인 식재료이다. 홍어는 예로부터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잔치음식으로 꼽혀왔는데, 우리나라 참홍어 전체 어획량 중 흑산도 인근에서 난 홍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흑산도는 홍어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제10호,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통 어업문화 보전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 관광객 증가,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어업과 관련된 유·무형 자산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라져가는 전통어업을 보전해 나가는 한편,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도 적극 추진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전북 부안군 곰소 천일염업

유산 명칭	전북 부안군 곰소 천일염업
위 치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일원
면 적	5.4km ²
개요	염전에서 바닷물을 햇빛과 바람만으로 자연 증발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의 어업활동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해역에서 햇빛과 바람만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전통방식을 고수하며 국내 천일염 생산의 명맥을 유지 • 곰소항 인근에 소재한 염전은 바둑판 모양으로 독특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염전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원형 그대로 잘 보존



곰소염전



곰소염전 및 천일염 생산



곰소염전 결정지

참고 2

전남 신안군 흑산 홍어잡이어업

유산 명칭	전남 신안군 흑산 홍어잡이 어업
위 치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일대 연근해어장
면 적	6,901.4km ²
개요	주낙·연승의 전통 어로방식으로 행해지는 홍어잡이 어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산도 일대 연근해어장에서 조업하는 홍어잡이는 전통 어법인 외줄낚시와 주낙을 계승한 걸낙 방식으로 주민들의 생계 수단으로 이용 • 홍어의 생태를 파악하여 미끼를 끼우지 않는 걸낙으로 포획하는 방법은 어장환경을 보호하는 환경친화적인 방법 • 홍어의 서식지 등을 파악하고 조류의 방향을 인식하는 등 전통 토착 지식이 내포된 어업활동 시스템



홍어잡이 모습



주낙 채비



홍어 경매



홍어썰기 학교

참고 3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현황(2021년 3월 기준)

	대상 지역	특 징
해녀어업 (제1호) ('15. 12. 21)	제주도 전역 (14,346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녀어업은 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전통적 어업방식으로 불턱, 해신당 등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문화적 가치 존재
보성 빨배어업 (제2호) ('15. 12. 21)	전남 보성군 별교읍 장암리 일대(35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밟으면 매우 깊게 빠지는 아주 미세한 갯벌 진흙(mud) 특성 때문에 빨배는 꼬막 채취를 위한 유일한 어업활동 이동 수단
남해 죽방렴 (제3호) ('15. 12. 21)	경남 남해군 삼동/창선면 지죽해협 일원 (537.2ha, 죽방렴 2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시대 이래 현재까지 어업인 생계수단으로써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반도 유일의 함정어구를 사용한 어로방식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대표적인 전통적 어업시스템
신안 갯벌 천일염업 (제4호) ('16. 10. 31)	전남 신안군 천일염전 일대 (29.7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 들어 전통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해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전통어업활동시스템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 (제5호) ('17. 12. 1)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청용리, 가교리, 봉명리 일대의 지주식 김 양식장 (358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얕은 수심과 큰 조수간만의 차 등 양식 어장의 특성을 이용해 김을 자연 햇볕에 일정시간 노출을 반복하면서 생산하는 친환경 전통적 김 양식어업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제6호) ('18. 11. 30)	무안 탄도 및 신안 선도 일대 갯벌(118.35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지의 생태를 파악하여 재빠르게 맨손으로 포획하는 전통 낙지잡이 어법
하동·광양 재첩잡이 손틀어업 (제7호) ('18. 11. 30)	하동군, 광양시 섬진강 하류 일원 (140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환경이 잘 보존된 기수역에서 거랭이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재첩을 채취하는 어법
통영·거제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 (제8호) ('20. 07. 06)	통영시, 거제시 견내량 해협 일원 (63.6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환경이 잘 보존되고 빠른 유속과 깨끗한 수질의 견내량 수역에서 자란 미역을 트릿대(도구)를 이용하여 채취 하는 전통어업
울진·울릉 돌곽 떼배 채취 어업 (제9호) ('21. 03. 08)	울진·울릉 돌곽 채취 구역 (39.79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동나무 등을 뗏목처럼 엮어 만든 배로 돌곽(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